

한국수어 교육용 관용표현 연구*

남기현

(나사렛대학교 강사)

<Abstract>

Nam Ki-Hyun. 2020. A Study on Educational Idiomatic Expressions of Korean Sign Language. *Korean Semantics*, 68. This study aims to: first, understand the current learning status of idiomatic expressions in Korean Sign Language(KSL) through the analysis of KSL textbooks published up till now by KSL Professional Institute, and secondly, propose a list of KSL educational idiomatic expressions. Accordingly we examined past literature and analysed KSL textbooks. As a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we identified that idiomatic expressions in KSL are not distinguished from modification of sign and polysemy. This is seen in the criteria of narrow sense of idiomatic expressions, that asserts more than one linguistic signs are not employed as a mere sum of meanings. This means that the modifications of signs and polysemy, both of which do not comply with the formal criteria of idiomatic expressions, are considered as idiomatic expressions. Next, as a conclusion of analysis of KSL textbooks, there were only three books which explicitly covered idiomatic expressions. Even the textbooks that introduced idiomatic expressions manifestly presented one word as idiomatic expressions, thereby violating the formal criteria for idiomatic expressions, defined as "phrases of two or more words." As per the time period when KSL idiomatic expressions were taught, they were introduced in basic level KSL textbooks, unlike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8S1A5B5A07074297)

the awareness that the idiomatic expressions were to be educated in advanced level; in few numbers though. We have also identified the phenomenon that the KSL idiomatic expression were few in narrow sense and more in the broad sense. Thus, we propose a list of KSL educational idiomatic expressions that includes both narrow and broad senses.

핵심어: 관용표현(idiomatic expression), 축자의미(literal meaning), 다의어(polysemy), 합성어(compound word), 연어(collocation), 관용구절(idiomatic phrase), 상용구절(common phrase)

1. 서론

농사회(農社會)는 청인(聽人)들이 구사하는 ‘표준수화’와 농인들이 구사하는 ‘농식수화’를 구별하여왔고 전자는 ‘문법수화’로 후자는 ‘관용수화’ 혹은 ‘자연수화’라는 용어로도 사용해왔다. 농식수화는 한국수어 교육현장에서는 볼 수 없지만 농인(聾人)들과 직접 만나야 배울 수 있는 수어로 인식해왔다(남상석, 2005: 33). 그러나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 전체를 관용수화로 간주하는 견해는 한국수어에서 관용표현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왔다(남기현, 2018: 94). 자연언어로서의 ‘한국수어’와 한국수어에서 관습적으로 굳어져 농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인 ‘관용표현’은 구별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농사회나 한국수어 연구분야에서 한국수어의 관용표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나 분석 기준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기 때문에 한국수어 교육현장에서도 관용표현을 고급 어휘 정도로만 인식하여 고급과정에 가서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관용표현은 ‘생성 당시에 가졌던 축자 의미와의 유연성이 오랜 변천 과정을 겪으면서 상실되었기 때문에 축자 의미만으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밖에 없다(문금현, 1998: 208).’ 이는 한국수어 교육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수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수어 관용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용표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용표현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교육기관에서 간행한 수어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수어 관용표현의 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한국수어 교재에 수록된 관용표현들이 관용표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관용표현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한국수어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을 제안한다.

2. 한국수어 관용표현 관련 논의

한국수어에서 관용표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표현들이 관용표현과 혼재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는데(김칠관, 1999a, b; 손천식, 1999; 이정옥, 2005; 남기현, 2018) 한국수어 교육현장에서도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이 절에서는 한국수어에서 관용표현 관련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수어에서 관용표현의 개념을 검토하고 분류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¹⁾

김칠관(1999a, b)는 한국수어에서 관용어를 한국 농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유한 표현 양식이라는 점에서 이디엄(idiom) 현상으로 보았다. 이디엄 현상은 한국수어가 자연언어로서 살아 있는 언어이며 농사회 속에서 잘 익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디엄의 예로 ‘손가락질을 한다’를 제시하였는데 이 표현을 구성하는 ‘손가락질’, ‘을’, ‘한다’는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 전체가 ‘비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성한다. 즉 이디엄 현상이란 ‘하나의 의미적 단위로 결합된 일련의 단어’ 혹은 ‘통사적 결합 전체가 하나의 기호로서 기호내용을 수반하게 된 것’을 뜻한다(김칠관, 1999b: 2-3).

김칠관(1999a, b)는 한국수어에서 관용어의 유형을 처음으로 분류하였으며 관용표현이 구(句)형식과 어(語)형식으로 흔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구(句)형식은 전체적 관용어구(total idioms)를 말하며 어형식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단어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ㄱ)과 (1ㄴ)은 구(句)형식의 예로 구성요소 하나이거나 두 개다. (1ㄷ)과 (1ㄹ)은 어형식의 예이며 마찬가지로 두 개의 구성요소로 결합된다. 구(句)형식의 예와 관련하여 한국수어 단어 형성에서 하나의

1) 한국수어 단어를 표기하는 방법은 연구자마다 다양한데 본고에서는 [] 안에 한국어 대용어로 표기한다(예: [눈]). 인용한 경우는 원문의 표기를 따른다.

형태가 여러 의미를 형성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귀를 같은 쪽 1:2지로 잡아끈다}와 같이 구체성을 띤 형태가 ‘한쪽 귀를 잡아 당긴다’는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귀가 솔깃하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생성하기도 한다. (1ㄱ)과 (1ㄴ)은 하나의 언어 단위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관용표현으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달리 (1ㄷ)와 (1ㄹ)은 두 개의 구성요소로 결합되고 하나의 의미라는 점에서 위 이디엄의 정의에 부합한다.

- (1) ㄱ. {#귀를 같은 쪽 1:2지로 잡아끈다}
 ‘귀가 솔깃하다.’
 ㄴ. {#왼팔 스쳐내리기_r + #오른팔 스쳐내리기_l}
 ‘상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
 ㄷ. {#눈 + #싸다}
 ‘잘못보다’
 ㄹ. {#맹(盲) + #주다}
 ‘못 본체 한다.’

한국수어에서 관용표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표현들을 구별하기 위해 손천식(1999)은 관용표현의 성립요건인 차용성, 동의성, 은유성, 대중성, 고정성을 한국수어에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논의를 아래에 제시하였다(손천식, 1999: 34-8). 먼저 차용성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에 대응하는 Y의 형식을 빌어 쓰는 것’으로 한국수어 /맛 없다/가 음식의 맛을 평가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용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동의성은 ‘실제 담화 현상에서 그와 대응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존재한다’는 특징으로 한국수어 /쇠/는 물질명사인 금속과 ‘다시는 하지 않겠다’가 동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동의성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은유성은 ‘두 사물 중 하나를 다른 것과 동일시하거나 한 사물을 통해서 새로운 뜻을 형성하는 것으로’ 한국수어에서 [꺾]은 동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 외에 야금야금 쌀을 한

2) 원문에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r과 l은 각각 오른손과 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왼팔 스쳐내리기}와 {#오른팔 스쳐내리기}가 +로 연결되어 두 개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으나 둘을 각기 독립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тол씩 나르고 모으는 쥐의 특성을 연상시킴으로써 관용표현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쥐]+[저금]은 ‘아주 조금씩 성실히 모으는 행위’를 [쥐]+[일]은 ‘작은 일을 (큰 벌이가 안되는) 근근이 하는 행위’를 [쥐]+[먹다]는 ‘가난한 채로 근근히 조금씩 먹고 사는 행위’를 뜻한다는 점에서 은유성을 따른다고 보았다. 대중성의 요건, 즉 관용표현이 처음 몇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다가 점차 사용빈도가 높아져 대중성을 갖게 된다는 점은 한국수어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고정성은 ‘특정 어휘나 둘 이상의 어휘 요소들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대치나 어순 바꾸기나 꾸밈말 덧붙이기 등의 변형에 제약을 받는, 즉 일종의 틀에 박힌 고정된 표현이 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수어에서는 /감기 강하다/, /무너지다 강하다/, /기다리다 강하다/, /소리 강하다/, /뻗뻗하다 강하다/, /열쇠 강하다/에서 /강하다/ 앞에 어떤 선행소가 대치되어도 /강하다/의 관용표현이 지닌 의미는 변하지 않아 한국어 관용표현에서의 고정성과는 그 성립요건이 다르다고 하였다.

한국수어 /맛 없다/와 /금속/은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미치지 못함’ 그리고 ‘철’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두 개의 뜻을 가진다. 둘 이상의 언어 기호가 단순한 의미의 함으로 쓰이지 않는 표현이라는 관용표현의 정의에서 볼 때 /맛 없다/와 /금속/은 하나의 표현이 두 개의 뜻을 가지지만 단어 단위이며 두 뜻은 서로 관련성을 가진 다의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손천식(1999)은 /강하다/가 후항요소로 구성된 구절들은 한국어 관용표현의 고정성을 위반한다고 보았으나 제시된 예 외에도 [살찌다]+[강하다] ‘살이 찌지 않다’, [연락]+[강하다] ‘연락이 되지 않다’, [출다]+[강하다] ‘추위를 타지 않다’ 등 많은 구절에서 사용된다.

이정옥(2005)은 관용표현을 다룬 문헌들과 인터넷 자료에서 수집한 969개 표현을 검토하였고 그중에서 관용표현은 202개(20.8%)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한 단어로 된 수화(수어 단어를 의미함)가 관용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관용표현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어형변화나 비수지 기호(non-manual signals)³⁾에 의한 의미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

3) 수어를 산출할 때 손이 아닌 주로 얼굴에서 나타나는 요소로서 미간 찌푸림, 눈썹 아래로 내림, 눈썹 위로 올림, 입 벌림, 상체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임 등을 말한다.

6 남기현

다. 그러나 한국수어 관용표현을 어형변화와 비수지 기호에 의한 의미변화와 함께 기술하고 있어 기존의 입장들과 완전히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 글의 앞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화의 관용표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형 변화나 비수지 신호에 의한 의미변화가 많았고, 한국어의 관용표현과 달리 하나의 표현이 반드시 체언형이나 용언형으로 굳어져 쓰이거나, 단어형, 구절형, 문장형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 하므로 그 표현의 형태를 서술형 관용표현이라고 명명하였다(이정옥, 2005: 27).

이정옥(2005: 27)은 앞의 두 연구와 달리 한국수어의 관용표현을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단어의 의미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야 하며, 수화를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협의의 관용표현 개념을 취하고 있다.

남기현(2018)에서는 한국수어에서 어형변화를 통해 관용표현이 생성된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어형변화는 개별 단어 차원에서의 변화이므로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구절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는 관용표현의 개념에 근거할 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단어의 형태 변화는 반의어와 다의어 형성, 부사어 실현, 일치 동사의 논항 실현 등 어휘 형성과 문법적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국수어 관용표현은 농사회와 한국수어 학습 현장에서 농인들의 수어가 곧 관용수어라고 보았던 대중적인 인식에서 시작하여 소수의 연구이지만 관용표현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한국수어 관용표현 관련 연구들은 관용표현의 범위를 정하는데 출발점이 된다. 관용표현과 어형변화의 구별, 다의어와의 구별 문제, 매우 생산적인 구절 형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 절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3. 관용표현의 구분 기준

관용표현은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나뉜다(문금현, 1999:

28). ‘습관적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이라는 광의의 관용표현에는 언어, 상용구절, 격언, 금기담, 비유 표현, 간접 화행 표현, 인사말, 상투적인 표현들, 비논리적인 표현들이 있다. 협의의 관용표현은 언어 내적인 조건과 언어 외적인 조건을 갖춘 것들이다.⁴⁾ 언어 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심재기 외, 2011: 291-2).

첫째, 관용의미는 구성 요소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여야 한다.

둘째, 축자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응 쌍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에는 유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수사 기법상 비유 표현이되 죽은 은유 표현이어야 한다. 은유의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유연성이 상실되면서 관용 의미가 생성된다.

관용표현은 협의와 광의 모두에서 구절 단위이다. 광의의 관용표현은 언어와 상용구절을 포함하고 이들은 축자적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협의의 관용표현에서 제외한다(심재기 외, 2011: 291). 관용구절, 상용구절, 언어는 두 구성요소의 필수적인 공기 관계와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문금현, 1999: 42-3).

첫째, 언어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가 다의화를 거치지 않아 축자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공기(共起)하는 것이다(예: 김을 매다, 폐를 쓰다 등).

둘째, 상용구절은 구성 요소 중 하나만이 다의어인 것이다(예: 손이 크다, 마음을 잡다).

셋째, 관용 구절은 구성 요소 둘 다 다의어이거나(예: 손을 떼다/ 주름을 잡다), 다의화와 전혀 무관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예: 눈을 감다/ 미역국을 먹다/ 시치미를 떼다).

관용표현과 어형변화, 다의어, 합성어와의 구분, 상용구절 및 언어와의 관계

4) 언어 외적인 조건은 언어 내적인 조건만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심재기 외, 2011: 291). ‘첫째,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광역성(廣域性)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대중성(大衆性)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일정 기간 지속성(持續性)을 가지고 언중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것이어야 한다.’ 한국수어 교육기관의 교재들에 수록된 관용표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농사회에서 사용된 표현들이므로 언어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를 살펴보도록 한다.

3.1. 관용표현과 어형변화

한국수어 관용표현 관련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는 관용표현과 관용표현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용표현과 혼동되었던 것은 어형변화와 비수지 신호에 의한 의미변화이다. 예를 들어 [망하다]를 표현하는 속도에 따라 ‘서서히 망하다’와 ‘폭삭 망하다’ 등으로 변형한다(김칠관, 1999a; 손천식, 1999). 손천식(1999: 38)은 기본수화의 변형은 관용표현의 차용성, 동의성, 은유성과 다르며 기본수화의 원래 의미를 수식해주는 부사나 관형사의 기능을 실현한 것이라 하였다. 본고에서도 어형변화는 관용표현 목록에서 제외한다.

3.2. 관용표현과 다의어

관용표현과 다의어를 구분을 위해 형태론적 조건과 의미론적 조건을 보도록 한다(심재기 외, 2011: 293).

첫째,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서 관용 구절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구와 절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의 자격을 가질 뿐이다. 둘째, 의미론적 조건에 의해서 보면, 관용 구절과 다의어는 똑같이 의미 전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의어는 단어 차원에서 일어나 원래의 기본 의미에다 추가적으로 다른 의미가 더해져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된 단어를 말하고, 관용 구절은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의 결합체인 구절 단위로 의미 전이가 일어나 하나의 단어 의미로 고정된 구절을 말한다. 또 다의어는 기본의미와 파생 의미 사이에 유연성을 가지지만 관용 구절은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에 유연성을 가지지 않는다.

위 기준에 따르면, 관용표현과 다의어는 하나의 형식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근본적인 차이는 언어적 단위이다. 관용표현의 성립 요건 중에서 동의성에 해당하는 예를 다시 보면(손천식, 1999: 35), 한국어에서

/바가지를 굶다/가 ‘바가지를 굶는다’라는 행위의 뜻 외에 ‘불평하다’라는 뜻이 새로 형성되어 둘은 동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한국수어에서 /쇠/는 물질 명사인 ‘금속’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동의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구절 차원에서 의미 전이가 일어났고 한국수어에서는 단어 차원에서 의미 전이가 일어났다. 또한 한국어의 예는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에 유연성을 가지지 않는데 반해 한국수어의 예는 기본 의미와 파생의미 사이에 유연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수어에서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을 정할 때 단어 차원의 다의어는 제외한다.

3.3. 관용표현과 합성어

수어에서 구와 합성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합성어의 형태적·의미적 변화이다 (Klima & Bellugi, 1979). 합성어에서 첫 번째 구성요소의 움직임이 축소되거나 두 번째 구성요소의 움직임 반복이 삭제되어 합성어의 전체 지속시간은 두 단어보다는 하나의 단어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 [알리다]는 [알다]와 [주다]가 결합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첫 번째 구성요소 [알다]의 상하로 움직이는 반복 움직임이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또 다른 예로 [좋다]와 [정하다]가 결합한 [합당하다]인데 이는 검열할 때 이상이 없음을 도장으로 찍는 데서 유래하였다 (장진권, 2004: 156). 합성어에서 두 번째 구성요소 [정하다]는 첫 번째 구성요소 [좋다]가 시작될 때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합성어의 형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로써 두 단어는 하나의 동작으로 부드럽게 이어져서 현재는 완전히 어휘화되어 둘 사이에 다른 단어를 넣을 수 없다. 음운적으로 하나의 형태가 되어 개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의미적인 특성으로 합성어는 구성요소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가진다. [알리다]는 구성요소에서 합성어의 의미를 대략 예측할 수 있으나 [합당하다]는 [좋다]와 [정하다]의 결합에서 ‘안성맞춤’, ‘적격이다’, ‘정상’이라는 의미를 예측하기 어렵다.

관용표현과 어형변화, 다의어, 합성어를 의미적 차원과 형태적 차원에서 구별하였다. 의미적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구분이 어려우나 형태적 차원에서 관용표현은 구절인 데 반해 어형변화, 다의어, 합성어는

단어이다.

3.4. 관용표현과 상용구절과 연어

한국수어에서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을 정할 때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의 구분은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의미 분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한이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구절의 구성 요소의 형태와 의미가 불분명해져서 구성요소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한국수어 관용표현들은 구성요소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띠는 경우보다 구성요소들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본고에서는 광의와 협의의 관용표현을 모두를 포괄하여 구절 단위의 관용표현 목록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다만 진술한 바와 같이 어형변화, 다의어, 합성어는 제외하겠다.

4. 한국수어 교육기관 교재 분석

한국수어 관용표현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지역에 소재한 한국수어 전문 교육기관에서 편찬한 교재를 분석하였다. 한국수어 전문 교육기관들은 한국수어를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는 강좌와 수어통역 관련 강좌(수어번역, 수어통역, 음성통역, 농통역사대비반, 수어통역사필기대비반 등)를 개설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수어 수준별 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재 중에서 사진 혹은 한국어만으로 제시한 경우는 관용표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은 본고에서 관용표현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교재들이다. 관용표현을 분명하게 밝힌 교재와 관용표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미 여러 문헌과 다른 교재 등에서 관용표현으로 소개된 표현들을 수록하고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1> 기관별 분석 대상 교재

기관명	교재명	과정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관용수어반	구분없음
경기도수어교육원	한국수어의 실제(초급편)	기초과정
강원도수화문화원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Ⅱ	기초과정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Ⅲ	중급과정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Ⅲ-하	중급과정
경북수화문화원	뽀(FUN)뽀(燻)한 수어	기초과정
	수어배우기좋은책	중급과정

4.1. 교육기관 교재의 관용표현 제시 현황

위 교재들에서 관용표현으로 소개된 목록을 조사하였다. 교재들은 관용표현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먼저 관용표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수록한 교재는 「뽀(FUN)뽀(燻)한 수어」, 「한국수어의 실제(초급편)」, 「관용수어반」으로 3권이였다. 「관용수어반」은 원저인 「알기 쉽고 재미있는 한국수화여행」(장진권, 2004)을 편집한 교재이므로 원저를 참고하였다.

「알기 쉽고 재미있는 한국수화여행」의 일러두기에는 ‘농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수화 또는 꼭 알아야 할 기초수화를 선정·수록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관용수어반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이지만 관용수화와 기초수화가 구분 없이 수록되어 있다. 총 수록 어휘 수가 489개이며 이 중에서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구절은 177개였다(36.2%). 이 중에서 [있다]「한 손을 펴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힘있게 내림」‘분명히 있다’와 같이 두 구성요소는 제3의 의미를 가지지도 않고 구성요소 둘 중 하나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용표현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뽀(FUN)뽀(燻)한 수어」는 ‘재미있는 관용수어’ 코너에서 총 7개의 관용표현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것은 ‘먹보’와 ‘술에 강하다’, ‘잘 먹는다’로 3개였다. 나머지는 [맛]‘고기가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질겨서 먹기가 힘들다’, [역겹다]‘그 남자는 예의가 없어서 보기 역겹다’, [지루하다]‘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다’, [마음대로/주무르다]‘이 책은 강사 재량껏 가르치도록 만들어졌다’, [아껴먹다]‘근근이 연명하다’이다. 이 4개 단어는 관용표현의 형태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한국수어의 실제(초급편)」에서는 총 11개의 관용표현이 수록되었는데 모두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구절이었다.

다음은 관용표현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교재들이다. 「수어배우기 좋은책」,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Ⅱ」,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Ⅲ」,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Ⅲ-하」이다. 먼저 「수어배우기 좋은책」에서는 ‘농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어표현’에서 29개의 단어와 구절을 제시하였다.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Ⅱ」는 일상적인 대화를 소재로 하여 구성된 교재로서 인사, 가족, 휴일, 학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대화문을 구성하여 어휘화된 단어의 비중은 매우 높으나 관용표현은 8과에서 ‘돈 없다’를 1회 수록하였다.

위 교재에서 추출한 관용표현 목록을 원 교재의 표기 방식을 따라 <표 2>에 제시하였다. 관용표현을 여러 개의 표제어로 제시한 경우는 맨 앞에 제시된 하나를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무자비/무차별/냉혈한/인정 사정 볼 것 없다’라는 여러 표제어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무자비’를 제시하였다.

<표 2> 교육기관 교재의 관용표현 목록

교재명	관용표현 목록
뻔(FUN)뻔(燻)한 수어	(1) ‘먹다’+‘왕’ = ‘먹보’ (2) ‘술’+‘힘’ = ‘술에 강하다’ (3) ‘먹다’+‘힘’ = ‘잘 먹는다’
한국수어의 실제 (초급편)	(1) [공부] + [힘] 수제, 공부를 잘하다 (2) [눈] + [귀신] 귀신같이 알아채다, 눈치가 빠르다 (3) [귀신] + [엇비슷하다] 도사 같다 (4) [기분] + [갈등] 비위가 상하다 (5) [기억] + [냄새] 기억력이 좋다 (6) [깨끗하다] + [주다] 솔직히 말하다 (7) [냄새] + [미심쩍다] 낚시를 채다 (8) [냄새] + [과약] 훤히 알다 (9) [눈] + [짜다] 잘못보다

	<p>(10) [돈] + [죽다] 돈이 궁하다, 자금이 바닥나다 (11) [돈] + [힘] 부자, 돈이 많다</p>
<p>알기 쉽고 재미있는 한국수화여행</p>	<p>(1) 무자비, (2) 험했다, (3) 께차다, (4) 무소부지, (5) 이미 다 들었다, (6) 정보가 늦다, (7) 뜻밖이군, (8) 말도 안되는 소리, (9) 너무 우스꽝스러워, (10) 눈물이 날 정도로(재미있다/우스꽝스럽다), (11) 못 참겠다, (12) 기분이 언짢다, (13) 꼴사납다, (14) 이를 갈다, (15) 망신당하다, (16) 실수를 들추어 창피 주다, (17) 정이 떨어지다, (18) 맘이 약하다, (19) 특별히 봐주다, (20) 보고도 못 본 체하다, (21) 정말 눈이 좋다, (22) 눈치가 빠르지 못하다, (23) 한눈을 팔다, (24) 눈에 거슬리다, (25) 더 이상 보기 어렵다, (26)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27) 오래도록 기억하다, (28) 까맣게 잊어버리다, (29)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30) 정신이 나가다, (31) 정말 잘됐구나, (32) 기가 짝 죽다, (33) 의욕을 잃다, (34) 아직 입맛이 남다, (35) 그럭 저럭 지나다, (36) ~할 줄 알고 있는데, (37) 염병할, (38) 왜 그런 짓을 하느냐? (39) 내가 그랬어요, (40) 내가 그럴 사람이나?, (41) 습관적이다, (42) 습관이 몸에 깊게 배다, (43) 어렵도 없다, (44) 책임을 지다, (45) 도사 같아, (46) 알아서 해라, (47) 전심전력을 다 하다, (48) 이를 악물다, (49) 시간이 너무 늦었군요, (50) 지름길로 가다, (51) 너무 멀어서 못가, (52)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53) 입에 맞지 않다, (54) 풍비박산, (55) 농인들의 눈이 정확하다, (56) 이미 얼질러진 물이야, (57) 잃었던 물건이나 사람을 겨우 찾다, (58) 티끌 모아 태산, (59) 근근득생, (60) 빛이 산더미처럼 쌓이다, (61) 돈이 궁하다, (62) 돈을 내기 아깝다, (63) 나이가 많다, (64) 말로만 하지, (65) 수다쟁이, (66) 말을 쉬다, (67) 미끼를 던지다, (68) 임기응변, (69) 솔직히 말해서, (70) ~의 말이 맞다, (71) 긴말하지 마라, (72) 할 말을 잃다, (73)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다, (74)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다, (75) 봐주지 않다</p>
<p>수어배우기 좋은책</p>	<p>(1) 그는 예의 바른 생활이 습관화되었다 (2) 자주 늦는다 (3)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못 믿어 (4) 점점 흥미로워진다</p>
<p>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Ⅱ</p>	<p>(1) 돈 없다</p>
<p>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Ⅲ</p>	<p>(1) 티끌모아 태산이다 (지축) (2) 지름길로 가면 금방이야 (지름길) (3) 네 집을 겨우 찾았다 (겨우 찾다)</p>

	<p>(4) 도둑이 들었다던데 저 사람이 <u>딱</u> 범인 <u>같아</u> (5) 그 지역 지리는 <u>잘</u> <u>알고</u> <u>있다</u> (6) 그 친구에 대해서는 <u>모르는</u> <u>것이</u> <u>없어요</u> (7) 그는 <u>모르는</u> <u>것이</u> <u>없는</u> <u>척척박사</u>이다 (8) 그녀는 너무 <u>말이</u> <u>많다</u> (9) 피서철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u> 많다</u> (10) 별 <u>생각</u> <u>없이</u> 지나다보니 벌써 개학이네 (11) 그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 <u>지루하다</u> (12) <u>벌써</u> 밥을 다 먹었어 (13) 아직 배가 <u>덜</u> <u>찜</u>다 (14) 수영복이 벗겨져서 <u>망신스러웠다</u> (15) 전혀 <u>기억이</u> <u>나지</u> <u>않는다</u> (16) 교통사고로 <u>기억상실</u>중에 걸렸다</p>
<p>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Ⅲ-하</p>	<p>(1) 구석에 있는 물건을 찾아내다니 <u>눈이</u> <u>좋구나</u> (2) 그 사람의 행동이 <u>눈에</u> <u>거슬린다</u> (3) 길을 건다가 돌을 <u>못</u> <u>보고</u> 걸려 넘어졌다 (4) <u>말</u> <u>돌리지</u> 마 (5) 남편은 <u>눈치가</u> <u>빠른</u>데 아들은 둔하다 (6) <u>말이</u> <u>많은</u> 사람은 실수하기 쉽다 (7) 갑작스런 질문에 <u>말문이</u> <u>막혔다</u> (8) 내 실수가 들통나니 <u>할</u> <u>말이</u> <u>없었다</u> (9) 거봐! <u>내</u> <u>말이</u> <u>맞잖아</u> (10) <u>벌써</u> 주문했다 (11) 계속된 질책에 <u>의욕이</u> <u>떨어진다</u> (12) 집요한 요청에 <u>지쳐</u> 물건을 샀다 (13) 그는 부자<u>행세</u>를 하고 다닌다 (14) 그는 선거철이면 <u>얼굴을</u> <u>비친다</u> (15) 만리장성의 웅장함은 <u>말로</u> <u>표현할</u> <u>수가</u> <u>없다</u> (16) <u>억울</u>해요. 전 흠친 적이 없어요</p>

4.2. 교육기관 교재의 관용표현 제시 방식

교육기관 교재의 관용표현의 제시 방식을 보자. 「뽀(FUN)뽀(燐)한 수어」(총 10장)는 기초과정 교재이다. 6과와 10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 ‘재미있는 관용수어’라는 코너를 두어 총 7개 관용표현을 제시하였으나 이 중에서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는 3개에 불과하였다. 관용표현은 사진, 구성요소, 뜻을 제시하였다. 「한국수어의 실제(초급편)」(총 12장)은 기초과정 교재이다. 마지막

12장에서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관용표현 11개를 모두 제시하였다. 사진, 구성요소, 뜻을 제시하였다. 「알기 쉽고 재미있는 한국수화여행」은 수화원(어원), 표제어, 수어단어 그림, 용례, 기호설명문으로 제시하였다. 「수어배우기 좋은책」(총 16과)은 중급과정 교재로 ‘농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어표현’이라는 코너에서 28개 표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는 3개였다. 사진, 예문을 제시하였다.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 Ⅲ」와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 Ⅲ-하」는 중급과정 교재로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표현이 각각 16개였다. 두 책은 사진과 예문을 제시하였다. 예문은 ‘구석에 있는 물건을 찾아내다니 **눈이 좋구나**’, ‘그 친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와 같이 관용표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진하게, 밑줄, 기울임으로 구분하였다.

<표 3> 교육기관 교재의 관용표현 제시 방식

교재명	과정	강(과)	사진	구성요소	뜻
뽀(FUN) 뽀(矯)한 수어	기초과정	1~5강 7~9강	있음	[먹다]+[왕]	먹보
한국수어의 실제(초급편)	기초과정	12강	있음	[공부]+[힘]	수제, 공부를 잘하다
알기 쉽고 재미있는 한국수화여행	구분없음	전과	있음	오른손 2지를 귀에 댄 후, '1초'의 수화기호 를 나타낸다.	이미 다 들었다
수어배우기 좋은책	중급과정	3~11강	있음	사진	점점 흥미로워 진다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Ⅱ	기초과정	8과	있음	사진	돈 없다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Ⅲ	중급과정	전과	있음	사진	티끌모아 태산이다
재미있게	중급과정	전과	있음	사진	구석에

배우는 한국수어Ⅲ- 하					있는 물건을 찾다니 눈이 좋구나!
--------------------	--	--	--	--	--------------------------------

한국수어 교육기관의 교재들에서 관용표현의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표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수록한 교재는 3권에 불과하였다. 3권 중 1권을 제외하고 2권은 하나의 단어를 관용표현으로 제시하여 구절이라는 관용표현의 형식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 농인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관용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관용표현을 명시적으로 밝힌 교재에서 관용표현은 전과에 걸쳐 각 과에서 2개 정도씩 나누어 제시하거나 한 과에서만 모두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후자의 방식도 전체 관용표현의 수를 전과의 수로 나누면 각 과에서 1개 정도 제시한 것과 같다. 이처럼 관용표현을 제시하더라도 그 수가 매우 적었다.

셋째, 교재마다 같은 관용표현이라도 제시 형태가 달랐다. 예를 들어 A 교재에서는 구절 단위로 제시하였으나 B 교재에서는 단어로 제시하였다. 두 구성요소 중에서 하나를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성요소 하나만 강조하여 제시한 것인지 설명이 없어 정확한 구성요소의 파악이 어렵다.

넷째, 관용표현의 학습 시기와 관련하여 관용표현은 고급과정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기초과정에서 관용표현을 소개하였다. 물론 기초과정 교재 중에는 관용표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2권의 기초과정 교재(「입문반」,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 I」)는 기존의 기초과정 교재와 달리 한국수어의 어휘화된 단어를 소개하기에 앞서 사물이나 사람의 형상과 움직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용표현을 다루지 않았다. 또한 고급과정의 교재들(「고급반」,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 V」)에서도 관용표현을 다루지 않았다. 최근의 이슈들과 전문적인 내용을 한국수어로 바꾸거나 동화를 한국수어로 표현하는 등 교육내용의 특성상 관용표현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재의 수준보다 교육내용에 따라 관용표현의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섯째, 일부 교재는 관용구절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여 해당 구절의 의미와 용법을 가르치는데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관용구절의 구성요소가 사진으로만 제시되어 구성요소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구석에 있는 물건을 찾아내다니 **눈이 좋구나**’에서 ‘**눈이 좋구나**’가 관용구절에 해당되는데 구성요소들의 의미가 제시되지 않아 관용표현임을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관용표현은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어 구성요소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나 교사와 학습자에게 관용표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5.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

한국수어에서 구성요소의 합이 제3의 의미인 관용의미를 가진 협의의 관용표현은 드문 데 반해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가 다의어인 경우와 연어, 즉 광의의 관용표현이 많았다. 따라서 한국수어 교육용 관용표현으로 협의뿐만 아니라 광의의 관용표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수어 교재에서 수록된 관용표현을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분류하였다.

5.1. 광의의 관용표현

한국수어에서 특정 관용표현만 두고 볼 때 구성요소의 의미의 합이 제3의 의미를 형성하여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구성요소 중 한 요소가 생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용표현으로서의 자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힘], [강하다], [귀신]이 결합한 구절들이다.

[힘]이 결합된 구절은 위 교재들에서 제시한 [공부+힘]‘수재, 공부를 잘하다’, [술+힘]‘술에 강하다’, [먹다+힘]‘잘 먹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하다], [담배], [자다], [여행하다], [스마트폰하다], [기억하다], [뻔뻔하다] [고집] 등 구절의 구성이 매우 생산적이다. [힘]은 앞에 오는 말이 나타내는 행동을 지속한다거나 혹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해당 행동에 몰두해 있을 때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강하다]는 물리적 강도 ‘단단하다’를 표현할 뿐 아니

라 ‘전혀 반응이 없다, 기미가 없다, 끄덕하지 않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강하다]가 포함된 구절 역시 매우 생산성이 높다. [귀신]이 결합된 구성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X]+[귀신]‘X가 사라지다’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 구절들은 생산성이 높으므로 일부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인들의 언어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으므로 다양한 예문을 통해 교육할 필요는 있다.

그 외에 다소 생산적으로 구절을 형성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 [1초]는 앞에 오는 말이 의미하는 내용이 매우 빠르게 수행됨을 의미한다. 주로 [듣다]+[1초]의 구절로 사용되지만 [먹다]+[1초], [달리다]+[1초]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 [1초]는 독립적인 단위로써 결합력이 높아 보인다. [갈등], [항복], [지겹다]가 포함된 구절들도 같은 예이다. 이들은 광의의 관용표현 목록에 포함하였다.

<표 4> 광의의 관용표현5)

번호	표현	의미
(1)	[눈물]+[제로(0점)]	‘무자비’
(2)	[눈]+[갈등]	‘눈에 거슬리다’
(3)	[돈]+[발가벗다]	‘돈이 하나도 없다’
(4)	[냄새]+[잡아채다]	‘훤히 다 알다’
(5)	[천지]+[잡아채다]	‘척척박사’
(6)	[듣다]+[1초]	‘이미 다 들었다’
(7)	[양손으로 배를 두드림]+[주먹 쥔 양손을 맞붙였다가 꺾듯이 위로 올려 세움]	‘너무 우스꽝스럽다’
(8)	[신경을 쓰다]+[지다]	‘짜증나 죽겠다’
(9)	[이]+[양손을 구부려 거의 맞닿게 하여 서로 엇갈리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함]	‘이를 갈다’
(10)	[정]+[나지 않다]	‘정이 떨어지다’
(11)	[마음이 찢리다]+[지다]	‘맘이 약하다’
(12)	[눈]+[느리다]	‘눈치가 빠르지 못하다’
(13)	[눈]+[항복]	‘더 이상 보기 어렵다’
(14)	[기억]+[악취]	‘오래도록 기억하다’
(15)	[생각]+[손끝을 모은 양손을 앞뒤로 하여 입 가까이에 댄 후 한 손만 앞으로 내밀]	‘까맣게 잊어버리다’
(16)	[생각]+[항복]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5) 수어의 동작 설명은 장진권(2004)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17)	[생각]+[도망]	‘생각이 나지 않다’
(18)	[생각]+[약간 벌린 한손을 약간 벌린 한손 등위에 X자형으로 대었다가 돌려서 맞냄]	‘정말 잘됐구나’
(19)	[생각]+[편 양손을 힘없이 아래로 내림]	‘기가 꺾 죽다’
(20)	[생각]+[발생하지 않다]	‘의욕을 잃다’
(21)	[생각]+[한손 엄지와 검지만 편 안에 다른 손 검지를 돌리는 동작을 여러 차례 함]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
(22)	[생각]+[가지다]	‘~라고 생각하다’
(23)	[생각]+[양손 손목을 서로 부딪힘]	‘멍청이, 멍청하다’
(24)	[생각]+[거꾸로 하는 행위]	‘행동이 이상해’
(25)	[버릇]+[자라다]	‘습관적이다’
(26)	[숨쉬다]+[몸에 배다]	‘습관이 몸에 깊게 배다’
(27)	[나]+[어울리다]+[없다]	‘어렵도 없다’
(28)	[귀신]+[엇비슷하다]	‘도사 같아’
(29)	[한손 검지를 배에 댄]+[가볍게 주먹 쥔 양손을 거의 맞닿게 하여 빨래를 짜듯 엇갈리게 비툼]	‘전심전력을 다하다’
(30)	[한손 검지를 이에 댄]+[가볍게 주먹 쥔 양손을 거의 맞닿게 하여 빨래를 짜듯 엇갈리게 비툼]	‘전심전력으로’
(31)	[시간]+[항복]	‘시간이 안된다’
(32)	[멀다]+[지겹다]	‘너무 멀어서 못 가’
(33)	[배부르다]+[지겹다]	‘배불러 못 먹겠다’
(34)	[검지로 입을 가리킴]+[갈등]	‘입에 맞지 않다’
(35)	[집]+[벼락]	‘호화로운 집’
(36)	[눈]+[귀신]	‘보는 눈이 귀신같다’
(37)	[약속]+[양손을 펴 꼭 잡음]	‘이미 엮질러진 물’
(38)	[빨강]+[고혈압]	‘빛이 짙이다’
(39)	[빨강]+[누에]	‘빛이 짙이다’
(40)	[돈]+[죽다]	‘돈이 궁하다’
(41)	[10원]+[한손 엄지와 검지를 붙여 눈에 대고 눈물이 흐르듯이 아래위로 움직임]	‘돈을 내기가 아깝다’
(42)	[나이]+[반쯤 구부린 양손을 위아래로 마주 댄 채 위에 위치한 손만 위로 올림]	‘나이가 많다’
(43)	[말]+[바퀴가 굴러가다]	‘수다를 떨다’
(44)	[말]+[한손 엄지와 검지 손끝을 붙여 다른 손 검지 위에 대어 가슴 쪽으로 당김]	‘말을 쉬다’
(45)	[사탕]+[한손 엄지와 중지를 붙여 다른 손 등에 대어 구슬을 튕기는 동작]	‘미끼를 던지다’

(46)	[말]+[양손 검지를 펴 위아래로 위치한 후 반대로 돌림]	‘말을 돌려 대다’
(47)	[말]+[이기다]	‘-의 말이 맞다’
(48)	[양손을 오므려 입에 대어 엄지와 손가락 끝을 붙였다 뗐다를 함]+[양손의 검지 부분을 힘있게 맞뺨]	‘긴말 하지 말아라’
(49)	[생각]+[탈선]	‘생각이 나지 않다’
(50)	[생각]+[기계가 멈추다]	‘생각이 나지 않다’
(51)	[말]+[한손 사이에서 다른 손을 뺨]	‘(자신의 실수에 수궁하여) 할 말이 없다’
(52)	[한손 검지를 배에 뺨]+[한손 주먹에 다른 손 엄지를 넣었다가 손가락을 아래로 내림]	‘봐주지 않다’

5.2. 혐의의 관용표현

혐의의 관용표현은 구성 단어들이 축차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특히 동물의 속성을 이용한 은유 표현으로는 ‘쥐’를 활용한 예는 다양한 표현을 구성한다. [쥐]+[찾다]+[발견]·‘겨우 찾아냈다’는 작은 쥐를 찾기 힘든 상황을 가져와 잃어버렸던 물건을 겨우 찾아냈을 때 사용한다. [쥐]+[지나가다]·‘지름길’은 작은 쥐가 길을 찾아가는 상황을 가져와 ‘지름길’을 의미한다. 쥐는 경제생활 표현에도 등장한다. [쥐]+[한손 검지 끝을 다른 손끝으로 잡아당기는 반복 동작]·‘근근이 연명하다, 조금씩 아껴 쓰다’와 [쥐]+[검지를 편 양손을 상하로 위치한 상태에서 원으로 교차하여 돌리는 동작]·‘티끌 모아 태산, 한푼 두푼 열심히 모으다, 근근히 모으다’이다.

<표 5> 혐의의 관용표현

번호	표현	의미
(1)	[눈물]+[이루다]	‘웃기다’
(2)	[얼굴]+[깨지다]	‘망신을 당하다’
(3)	[얼굴]+[박히다]	‘망신을 당하다’
(4)	[눈물]+[주다]	‘봐 주다’
(5)	[눈감다]+[주다]	‘눈감아 주다’
(6)	[눈]+[보석]	‘잘 찾아내다’
(7)	[눈]+[한손 손바닥 위에 엄지와 검지를]	‘보지 못하다, 안보이다’

	붙인 손을 갖다 댐]	
(8)	[맞]+[아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다’
(9)	[얼굴]+[100]	‘얼굴에 표가 나다’
(10)	[얼굴]+[서다]	‘책임을 지다’
(11)	[생각]+[두번 정도 박수를 친다]	‘알아서하다’
(12)	[쥐]+[한손 검지로 꼬불꼬불 선을 그리며 앞으로 이동함]	‘지름길로 가다’
(13)	[집]+[주먹 권 팔을 굽혀 세우고 편 손으로 툽질하는 동작]	‘퐁비박산’
(14)	[쥐]+[검지를 위이래로 약간 벌려 맞대어 돌림]	‘근근히 모으다’
(15)	[쥐]+[한손을 오프려 다른 손 검지를 여러번 굽는 동작]	‘조금씩 아껴쓰다’
(16)	[말]+[대포]	‘말로만 하다’
(17)	[깨끗하다]+[주다]	‘솔직히 말하다’

6. 결론

그간 한국수어에서 관용표현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한국수어 교육현장에서 관용표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농인들이 사용하는 일명 농식수어라는 인식에서 점차 관용표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표현들을 구분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본고는 한국수어 교육기관의 교재들을 검토하여 관용표현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을 제공하였다. 한국수어 교육기관의 교재들에서 관용표현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교재들은 드물었고 수록한 관용표현의 수도 많지 않았다. 교육시기와 관련하여 고급과정에서 다루는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기초과정 교재에서 관용표현을 제시하였다. 한국수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에게 농인들의 문화가 담긴 한국수어의 고유한 표현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반면 고급과정 교재는 최근 이슈들과 전문적인 내용을 한국수어로 바꾸거나 동화를 한국수어로 표현하는 등 교재의 내용상 관용표현을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에 따라 과정별로 관용표현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수어 학습의 전 과정에서 제시하여 한국수어의 어휘력과 표현

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관용표현은 특정 과정에서 배우는 고급 표현이 아니라 농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상적인 표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어에서 협의의 관용표현보다 습관적으로 굳어져 쓰이는 광의의 관용표현이 더 많았다. 본고에서는 광의와 협의의 관용표현을 모두 포함한 한국수어 관용표현 목록을 제안하였다. 광의의 관용표현을 목록에 포함한 이유는 우선 협의의 관용표현보다 광의의 관용표현이 많다는 점이다. 농인들은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개별 의미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해당 관용표현이 가진 전체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한국수어 교육에서 구절 단위를 통째로 가르쳐야 실제 상황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관용표현을 맥락 속에서 가르쳐야 적절한 쓰임과 의미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수어 관용표현을 분석할 때 제한점은 관용표현의 구성요소들의 의미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단어와 구절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합성어와 관용표현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합성어와 관용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을 모색하여 후속 연구에서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원도농아인협회(2010),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 I, 강원도: 고려출판사.
 강원도농아인협회(2010),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 II, 강원도: 고려출판사.
 강원도농아인협회(2010),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 III, 강원도: 고려출판사.
 강원도농아인협회(2012),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 III-하, 강원도: 고려출판사.
 강원도농아인협회(2013),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 IV, 강원도: 고려출판사.
 강원도농아인협회(2014),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 V, 강원도: 고려출판사.
 경북농아인협회 수어교재 편찬위원회(2012), 수어배우기 좋은책, 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김철관(1999a), 수화 지도의 이론과 실제, 인천성동학교.
 김철관(1999b), “이디엄 현상을 중심으로 본 한국수화의 의미구조”, 수화연구, 2, 2-17.
 남상석(2005), “관용수화의 표현방법”, 제16회 수화통역사 재보수교육, 한국농아인협회, 33-38.
 남기현(2018), “한국수어에서 관용표현 개념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어 의미학, 60, 93-120.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15, 207-233.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태학사.
-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언어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217-250.
- 심재기 외(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 교양.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수화전문교육원(미기재), 입문반, 서울수화전문교육원.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수화전문교육원(2018), 관용수어반, 도서출판 가온.
- 손천식(1999), “한국수화의 관용표현”,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32-41.
- 장진권(2004), 알기 쉽고 재미있는 한국수화여행, 서울: 한국농아인협회.
- 이정옥(2005), “한국 수화 관용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호·이수철·박경운·김옥경(2014), 뻔(FUN)뻔(燻)한 수어, 경상북도농아인협회 수어문화원.
- Klima, E. S., & Bellugi, U.(1979).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 경기도수어교육원(http://www.ggdeaf.kr/info_program/1813)
- 경북수화문화원(http://www.kbdeaf.or.kr/html/sub4_1.html)
- 서울수화전문교육원 (<http://www.sdeafsign.or.kr/SEW1/main.asp>)

남기현
나사렛대학교(강사)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수어교원학과
31172
전화 번호 : 041-570-1804
전자 우편 : ksl.classifier@gmail.com

원고 접수일 : 2020. 02. 20.
원고 수정일 : 2020. 05. 21.
게재 확정일 : 2020. 06. 17.